

해방 이후 우리나라 면작농업 소멸의 지역적 전개과정*

金 基 赫**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멸된 면화재배의 지역적인 축소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면화재배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면방직 공업은 원면도입으로 해외 원료 의존형 산업이 되었다. 환율정책으로 국내면 가격이 미국산 원조면보다 비싸지고, 정부의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면의 재배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국내면 재배 면적 감소의 지역적인 과정은 일차적으로 기후조건이 면화재배에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식량 발작물로 대체되었고, 이후 재배 유인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재배 발원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있었다. 현재 농촌에서 면화는 이불솜을 위한 자가 소비용, 식용, 약용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배방법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농민의 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국내면으로 만든 이불솜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시장이 확보될 경우 국내면이 앞으로도 재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主要語 : 농업지역구조, 원면도입, 면방직업, 농업정책, 면화재배

1. 서 론

1) 연구목적

작물은 농업경영 양식과 관련되어 농업지역의 성격을 景觀에 반영한다.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농경지와 농작물의 생태적인 특성, 풍토 및 재배 기술의 숙지 여부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인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Mather, 1986, p.26). 작물이 국민의 주식량이거나 혹은 자본축적을 위한 공업화의 원료일 때, 작물재배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은 그 사회의 가치체제를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형성된다(Bowler, 1986, p.125).

섬유작물인 면화는 서구에서 산업혁명 초기에 자본 축적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방 이후 수입면을 바탕으로 한

면방직 공업은 제분 공업과 함께 제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해방 이전 조선시대의 면작은 쌀과 함께 지리적으로 재배가 확대되었고 대외교역에서도 중요한 수출품목이었다. 일제시대 이후 육지면으로 대체되면서 재배면적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면화는 의복문화 뿐 아니라 민요, 전설 등을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에 깊숙히 스며든 작물이다(국립민속박물관, 1991, pp. 12-13).

그러나 면화는 지금 우리 농촌에서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1988년부터는 농림수산부의 작물통계에서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불과 100여년 동안 품종의 변화와 재배면적의 급격한 확대, 축소를 겪은 면화는(그림 1 참조) 조선 말부터 우리나라 농업이 겪은 급격한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물 중의 하나이다.

면화가 다른 작물에 비해 환금성이 높고, 기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釜山大學校 師範大學 副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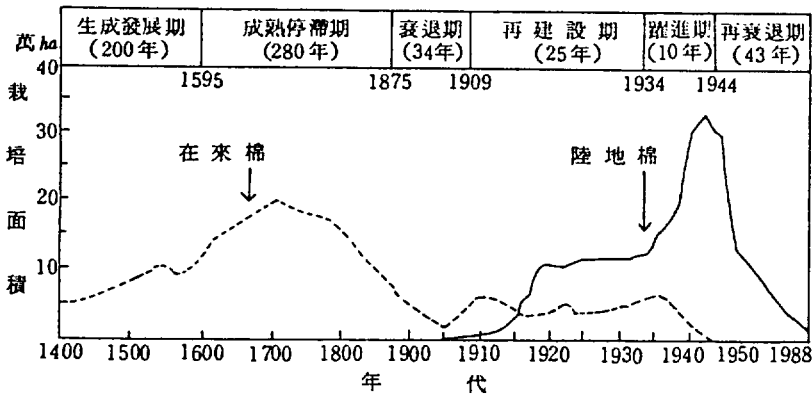


그림 1. 면화 재배면적의 변화

출처 : 鄭奎鎔, 1988, 木花試驗研究 八十年, 農村振興廳 作物試驗場

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면화 재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의 경우 기후의 불확실성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작물과의 경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Shakishali(1993)의 연구와 열대 아프리카의 식민지 농업에서 플랜테이션과 자영농들의 면화 재배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를 다룬 Sunseri(1993)의 연구가 있다. Turner(1993)는 미국 면화 수입국(일본, 프랑스, 이태리, 서독, 영국, 신흥 공업국)들의 수입물량을 면화가격, 폴리에스터의 가격, 수입국의 국내 총생산과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Ting(1993)은 대만에서 면방직 공업 등을 주축으로 한 공업화 정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관계기술과 관련된 농업정보의 흐름이 면화의 생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Larson(1992)의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면화재배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작물학에 있어서는 鄭奎鎔(198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의 면작 연구로는 高承濟(1959), 卞光錫(1988)의 연구 등이 있다. 일제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면적물업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다루면서, 특히 일제시대의 육지면 이식과정을 상세히 다룬 權泰櫟(1989)의 연구, 직물업의 수공업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촌락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노동력의 조달, 생산기술 등을 다룬 權丙卓(1972)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 일제시대 전담 지방을 중심으로

로 면작, 면업경제의 변화를 다룬 金衡模(1991)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일제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진 육지면의 보급과 재배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방 이후 면작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은 지리학에서 조선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면작농업의 지리적인 전개를 분석한 金珍順(1980)과 경제학에서 해방 이후 면방직 공업의 자본 축적과정에서 수입 원면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金洋和(1990)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 면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농산물 원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종덕(1993)의 연구가 있다.

이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면화에는 조선시대 收租체계, 일제시대의 식민지 농업생산공간의 성격, 해방 이후에는 산업자본의 축적과정에 따른 농업지역 기능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도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른 농업지역 성격과 지역구조의 변화는, 과거 면방직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었던 국내면의 소멸 과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면화의 재배가 소멸되었으나 아직도 극히 일부 농촌에서 미미하게 재배되고 있음이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외국 수입 원면에 밀려 면화재배가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 재배되는 것은 한국 농업의 이중적인 성격을 반영

하는 경관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원면 도입에 따른 국내 면화 재배의 축소와 이의 지리적인 전개과정을 확인하고 도시 산업화 시대에 어떠한 형태로 농촌에서 재배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외부 농업환경의 변화가 환금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는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고 농업 보호정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국내 농작물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소멸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대처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우리나라에서 면화 재배는 시대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해방이후 면화재배 축소는 해외 원면의 도입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직후 국내 면방직 공업의 형성과 해외 원면의 도입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식량작물 증산을 위주로 한 농업정책 하에서 재배공간의 축소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의 범위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러나 해방 당시의 면화 재배는 일제시대의 내용이 축적되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방 이전 면화 재배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해방이후 지역적인 전개는 「농림수산 통계연보」(1952~1989)를 이용하여 도별 재배면적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196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각 시기별 시·군별 면화의 재배 면적을 Choropleth Map으로 나타내어 지역적인 전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헌자료로는 「방협 20년사」, 「방협 30년사」, 「농정 10년사」, 「농정 40년사」 등의 농업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 산업화시대에 농촌에서 자급적인 성격을 띠고 재배되는 면화 재배의 의미는 농촌의 현지담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도청 농산과 특작계에 문의한 결과,

전라남도청에서 소개한 여천군을 제외하고는 재배 농촌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천군청에서 추천한 3개 농촌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소라면, 복촌마을(사곡리 3구)을 제외한 다른 마을의 경우 1992년까지만 재배되고 지금은(1993) 재배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복촌마을을 3차례(1993년 6월 25일 : 8월 16일 : 10월 26~27일) 답사하여, 이장과의 면담, 면화를 재배하는 45농가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면화 재배에서 농업노동력, 재배기술, 재배 농경지, 소비, 판매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면화와 유통과정은 여천군에 소재한 조면공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고, 면화 이불솜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불솜을 만드는 업자와 면담을 하였다.

2. 해방 이전의 면화 재배

1) 면화의 특성과 일제시대 육지면 재배

무궁화과(mallow family)에 속한 면화속(Gossypium)에는 20여종의 식물학적 품종이 열대의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에 분포한다. n=13군에는 G. arboreum(재래면 : 인도 동부의 버어마, 말레이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분포)와 G. herbaceum(인도로부터 서부 및 아프리카에 분포)이 있다. n=26군에는 G. hirsutum(육지면)과 G. barbadense(해도면)가 있다. 육지면은 아시아면보다 숙기가 늦은 편이나 조면율이 높고 섬유가 길며 연곡성이 커 방적용으로 적합하나 장력은 약하다(農業大辭典, 1975, p. 586). 이집트와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해도면은 면모가 가장 길고 품질이 우수하나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 면화는 열대지방에서는 다년생 작물이나, 온대지방에서는 1년생 초본으로 가을에 開絮한 후(그림 2) 서리가 내리면 죽는다. 배수가 좋은 모래 참흙이 적합하며 산성 토양보다는 염기성 토양에서 잘 되어 해안이나 간척지대에서도 재배된다. 현재 면화의 주요 생산지가 해안지대에 분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鄭奎鎔, 1988, pp. 209-210).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나 지력을 많이 소모하여 연작을 피한다. 특히 수확기에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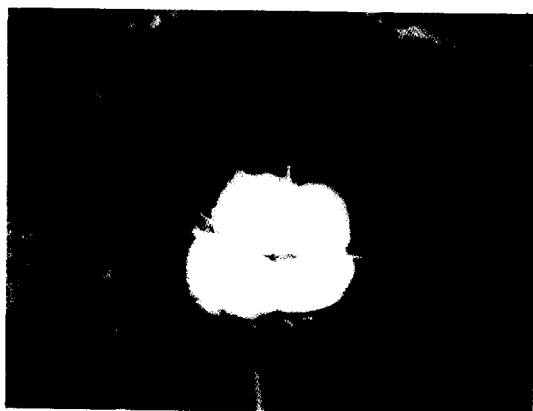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의 면화(1993. 10. 26. 복촌마을)

가 어려워 노동력의 계절적인 집중이 요구되는 등 높은 노동 집약도를 필요로 한다.

고려말 문익점에 의해 전래된 재래면은 조선 시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재배되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으로부터 면사 면포류가 수입되고 의복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다(澤村東平, 1985, p. 111). 18세기에 들어 1764년 영국에서 면방직 기계, 1793년 미국에서 조면기 등이 발명되면서 면방직공업이 세계 자본주의 진행에 중요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자본주의도 섬유공업을 축으로 한 것이 예외는 아니어서 방직업은 1883년 이후 급격히 발전하여 1887년을 전후하여 근대적인 방직업을 이루었다. 당시 전 세계 면화생산액 중 미국산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가 되어 미국산 면화의 작황이 원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890년에는 경제공황으로 일본은 해외시장을 찾게 되면서 방직공업 제품의 고급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재배되는 재래면은 제품의 고급화에 부적당하고¹⁾ 수입면인 육지면 재배는 그들의 기후조건에 맞지 않았다. 특히 집약적인 일본의 농업조직은 조방적인 미국 농업에 대해 경쟁이 어렵고, 물가와 노임 상승 등으로 노동 집약적인 면화는 유리한 작물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에서의 면화는 1887년을 분기점으로 작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특히 1898년 수입면화의 관세 철폐 이후 면화 경작면적은 가속도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원면 사정으로 일본은 면화의 신공급원을 찾기에 부심한 끝에 1902년 대만에서 시험연구를 하였으나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지역을 찾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면작이 '가내적인 수방 수직과 면작이 결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면작 감소추세가 적고(澤村東平, 1985, p. 111), 또한 한국 재래면의 품질이 미국의 육지면과 비슷하면서 기후조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재배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05년 전라남도 고흥도에서 일본인 若松에 의해 육지면 재배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²⁾, 이에 본격적인 육지면 재배사업을 벌인다.

1905년 노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인 지배체제가 확립되자 조선에 면작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통감부에 의해서 육지면 재배장려사업을 하기 위한 「면화재배협회」를 조직하였다. 1906년부터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30곳의 면화 종자원을 설치하여 육지면 재배의 확장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독점에 있으므로 일본의 방직 자본으로 大阪에 본점, 목포에 지점을 둔 한국 면화 주식회사를 설립, 영세농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대금을 대여하였다(高承濟, 1959, p. 113). 또한 육지면 종자의 안정적인 보급의 일환으로 한국의 재래의 조면기인 씨아가 종자용 子實을 손상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목포 세관 부지의 일부를 빌려 조면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육지면 재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성이 약하여, 조선의 농업형태에 접합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조선에서의 토지이용은 경남지방의 경우 생산이 안정적인 대두를 선호하여, 발에서 겨울에는 보리를, 여름에는 대두를 재배하는 윤작체제를 유지하였고, 특히 소작농인 춘궁농가의 경우 환금작물인 면화보다 식량작물 재배가 합리적이었다. 또한 면화는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開絮期가벼의 수확기와 겹침에 따라 노동력의 계절적인 집중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다른 작물에 비해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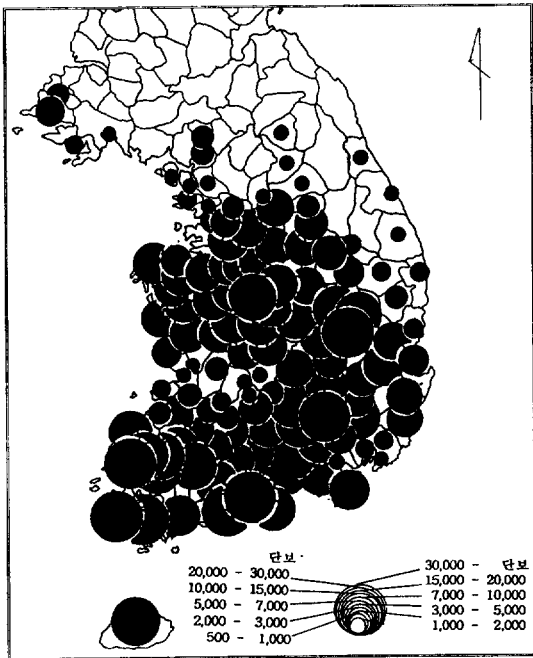


그림 3. 1935년 육지면 재배면적 분포
(자료: 各道 農業統計: 1935)

그러나 일제는 강점 이후 1911년까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채종포의 설치, 위탁재배와 모범작포제를 실시하고, 육지면 시험재배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1912년에 제 1기 면작 재배 6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16년에는 전라도 목포에 6곳, 영산포에 2곳, 광주에 2곳, 남평, 여수 및 경남 부산, 진주, 충남, 영동, 경북 대구, 전북 군산에 각각 1곳씩 설립하였다(權泰權, 1989, pp. 90-91). 면화재배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의 농업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 농민의 저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력 소모에 따른 백작의 수확감소를 막는 윤작 체제인 동맥작-하면작-동맥작-하대두 체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였다. 지리적인 확산은 초기에는 각 지방의 일본인 농장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는 군청, 경찰서, 학교, 금융조합의 앞선으로 토착 篤農家에 위탁하면서 전형적인 체증확산의 유형을 띠면서 이루어졌다(金珍順, 1980, pp. 29-31).

일본은 다시 1919년에 제 2기 10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육지면 생산을

가속화하면서, 북부지방에서는 이불솜용인 재래면의 재배장려 정책을 이중적으로 구사하였다. 1930년대 들어 미국, 영국과의 전쟁으로 인도산, 미국산 원면 도입이 차단당하여 방적공업의 원면확보가 위협당하자, 전시 자금체제를 이루기 위해 1933년부터 20년동안 작부면적 50만 정보 생산량 실현 6억근을 목표로 하는 제 3기 계획을 세워 전면적인 육지면의 증산계획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육지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배되었다(金基赫, 1994).

1935년 육지면 재배면적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재배 면적이 많은 군은 남부지역 중 대부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및 충청남·북도에 집중 분포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해남, 무안, 진도, 여수, 고흥, 함평, 화순, 영암, 나주 등의 재배 기원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남은 진주, 창녕, 함안, 함천, 의령 등의 낙동강 유역 지역 지역, 경북의 의성, 안동, 예천 등 조선시대부터 면화재배 기술이 축적 된 곳, 충남의 서산, 예산, 청양, 공주, 연기, 충북의 괴산 등 전작지역을 위주로 분포한다.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지역을 보면 전라북도의 군산 일대지역, 부산 일대의 김해지역, 경기도의 강화·김포 일대가 인근 지역에 비해 적다. 이들 지역은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미작 평야지역으로 인천, 부산, 군산항 등 미국 반출항의 배후지로 당시 농업 지역구조를 새롭게 편성한 축이었음이 기존의 연구(金基赫, 1994)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육지면의 재배 분포를 볼 때 한국 농업지역의 일본 지향적인 구조에서 미작지역이 제 1지대, 그 외곽에 제 2지대로 면화 재배지대가 정책적으로 설정되었고, 이 지역에서 재배 반출된 면화가 미국과 함께 한국의 농업을 대일 종속적인 농업 지역구조로 재편시킨 작물이었음을 보여준다.

3. 해방 이후 원조면의 도입과 국내면 재배정책

1) 원조면의 도입

해방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또한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면방직업은 비교적 소자본과 저기술에 의해 운영되는 경공업이며, 면직물이 대중 필수품으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량이 크고 시장 조건이 좋아 자본 축적에 알맞는 산업이다(韓國産業銀行調查部, 1966, p. 200). 해방되면서 8사 10공장이 우리손에 인계되어(韓國産業銀行調查部, 1958, p. 148) 일본의 독점자본과는 분리되었으나, 자본, 시설, 기술과 함께 원료 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해방 당시 면화가 밭에서 하맥작과 경합이 됨에 따라 식량부족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면화 재배정책을 실시하기는 무리였고 또한 당시의 유통구조(후술)내에서 면화의 효율적인 수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외국산 원면의 수입은 당시의 경제사정에서 외화 부족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와같은 내외의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상증여 형식으로 원면이 도입되었고³⁾ 이후 계속된 원면 도입은 국내 면방 공장들의 큰 환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당시 미국은 세계최대의 면화 생산국으로 과잉생산된 면화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면업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면화 재배자, 조면업자, 상인, 창고업자, 협동조합 종사자, 면직물 제조업자 그리고 면실유 제조업자 등 약 700만의 인구가 면화와 관련된 소득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토지와 장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이었다(金衡模, 1991, pp. 167-168). 이에 미국정부는 자국산 면화의 국내가격을 지지해 주기 위해 재정자금으로 대량의 면화를 구매했고 이를 다른 나라들(특히 2차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들 중 면화 비생산지역)에게 무상증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무상 증여는 단순한 시혜적인 원조가 아니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외 원면 시장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⁴⁾. 그러므로 미국은 각국에 대한 원면을 무상증여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 점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표 1. 원면환율과 면방공장 인수가격의 차이 (1950~1961)

기 간	원면환율	면방공장		인수가 C등급
		A	B	
1950. 1. 1~1950. 8. 15	900원	360	300	240원
1950. 8. 16~1950. 10. 13	?	576	480	384
1950. 11. 1~1951. 5. 6	2,500	900	756	605
1951. 5. 7~1951. 8. 1	4,000		1,582	
1951. 8. 2~1951. 11. 12	4,000		2,168	
1951. 11. 13~1952. 5. 20	4,000		2,340	
1952. 5. 21~1952. 12. 31	6,000		2,428	
1953. 1. 1~1953. 1. 28	6,000		2,460	
1953. 1. 29~1953. 10. 26	7,100		3,000	
1953. 10. 27~1954. 2. 4	12,000		4,672	
1954. 2. 5~1954. 11. 16	180		—	
1954. 11. 17~1955. 6. 13	310		—	
1955. 6. 14~1955. 8. 14	370		—	
1955. 8. 15~1958. 8. 27	500	(PL 480)		
1958. 8. 28~1960. 2. 22	650		—	
1960. 2. 23~1960. 8. 18	800		—	
1960. 8. 19~1960. 11. 22	920		—	
1960. 11. 23~1961. 1	960		—	
1961. 2 ~	1,300		—	

(자료 : 김양화, 1990, pp. 53-54에 의해 재정리)

국시장에서 미국은 먼저 원조원면의 한국내 판매대금인 대충자금 중 미국의 사용분을 제외한 한국측 사용분은 전부 한국 국방예산에 충당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6·25 이후 한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필요로 하였지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원면의 ‘신속하고 대량적인 소비’는 군사비의 ‘신속하고 대량적인 조달’을 의미하였고 결국 이 조치는 미국산 원면의 소비를 강제하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원면환율과 면방직 공장의 원면 인수가격에 차이를 둌으로써 원조 원면의 국내 판매가격을 저렴하게 하였고⁵⁾ 이에 국내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었다. 1950년 이후 원면환율과 면방공장 인수가격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이와같은 낮은 환율은 원면 원조사업이 구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동가격을 기초로 산출하여 중앙물가 행정처에 의해 제품 시판 가격이 통제

받았으므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격체제는 동년 6월에 도입된 제 3차까지 적용되었다.⁶⁾

2) 국내면 유통과 정부의 재배 정책

(1) 국내면 유통구조

해방 이후 국내면의 유통구조는 일제시대부터 이미 형성된 것으로 국내면의 가격을 원조면보다 더욱 비싸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다. 1950년대 당시 면화 유통구조는 그림 4와 같다. 6·25 이후 대부분의 물자는 통제 배급제에 의해 수집, 배분되었는데 면화의 경우는 실면의 수집, 대행 업무는 한국 면업협회가 담당하였다. 이 협회는 남북 면업공사, 한일 면업공사, 조선 면업공사, 마산 조면공사, 진주 조면공장 및 부산 조면공장 등의 연합 조직체로 면화의 수집은 각 공사 및 조면공장이 직접 하였다. 수집된 면화는 상공부의 할당에 의해 각 조면공장에 배당되어 조면을 하고 제면 공장이나 방직 공장에 매도된다. 조면이 나오는 면실의 일부는 파종용 종자로서 농회를 거쳐 면화 생산자에 다시 배급되고 나머지는 면실유로 제조되었다.

당시 농민이 생산한 면화가 방직원료로 원활하게 충당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유통 과정에 기인되어 공급자인 면업협회측과 소비자인 방직업체 간의 가격 차이에 기인하였다. 해방 직후 면방공업이 가동되면서 국내면 수집이 이루어져 1946년 실면 수매가격은 근당 18원, 나중에 15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중간 상인들은 원면의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을 예상하여 농민으로부터 수매 가격의 3~4배로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실면은 면화 상인들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이는 전술한 GARIOA자금에 의한 면화 도입을 유발하게 되었다.⁷⁾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1957년에 실시된 수매사업에서, 정부는 조면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각 도의 책임 하에 실면을 수집, 조면하여 방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물을 면방업체에 인도하도록 하고 동시에 매상자금은 농업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도는 행정관서로 실면 수매사업을 관장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실제 역할은 각 도에 산재하는 조면업자에게 위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자 조면업자들은 실면 수매량이 적고 각 방직 공장으로 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유처분할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조면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1956년산 국산면은 전량이 시중에 자유판매가 되었다. 이는 중간상의 입장에서 시중의 면화시세가 급등하여 수송부담이 없는 시중 판매가 채산상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조면업자에 의해 실면의 수매와 원면의 인도가 부진하자 「국산면 증산 대책위원회」는 방협이 면화 수매를 직접 주관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경성방직, 전남방직, 내외방직, 금성방직 및 대한 방직 5개사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방협이 국산면의 수매사업을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 1957년산부터 1961년산까지의 면화수매는 농림부와 방협 간에 상호 협의 결정된 「국산면 수매요령」에 의거하여 방협의 주관 하에 호남,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매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내면보다 훨씬 저렴한 외국면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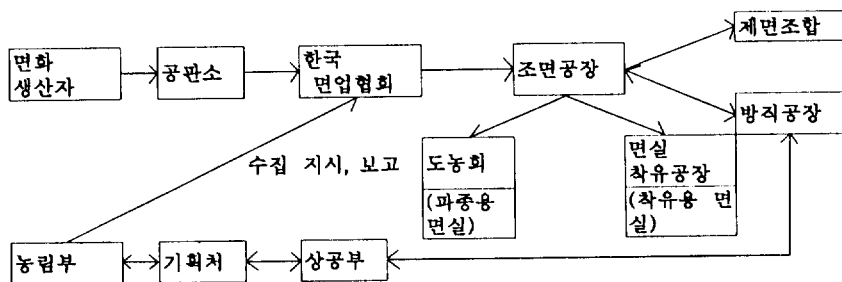


그림 4. 면화유통과정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9, pp. 2-14)

표 2. 1950년대 국산면 수매가격 책정 단가
(단위: 근당 원)

생산년도	농림부 책정	방협 제의	최종 단가
1956	369.71	350.00	350.00
1957	150.00	—	150.00
1958	220.00	180.00	200.00
1959	200.00	—	200.00
1960	205.00	—	205.00

출처: 紡協 二十年史, p. 219

출혈 생산을 보진하기 위한 농림부의 인상 주장과 방협 측의 면직 공업의 손실이 대립되어 매년 수매 가격의 결정에 난항을 겪게 된다. 당시 농림부의 책정 단가와 방협 제의단가는 표 2와 같다. 1956년과 1958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림부의 제시안이 방협측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매가격도 방협측에서 볼 때 수입면보다 비쌌다. 1957년의 경우 실면 1근당 15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면작 수익이 다른 농작물과 비슷해지려면 시세가 최소한 400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金洋和, 1990, p. 16) 수입 원면과 국내면의 가격차이는 현저한 것이었다.

(2) 정부의 국내면 재배정책

미국산 원면 원조는 면방직 공업의 자본축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면방공업의 전개에 여러 측면에서 제약하기도 하였다. 국내 면방직 공업은 매년 미국산 원조 원면의 수입량을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 없었고, 원면품의 선택도 고급품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육지면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다. 또한 원면 수입 시기, 면제품의 판매 특히 수출에서도 미국측의 강한 규제를 받았고 환율 인상에 따라 생산비도 높아지게 되었다.⁸⁾ 이에 방직업체는 국산면에 의해 원료가 조달될 경우 원가의 24%에 해당하는 수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에 따라 국내 원면의 조달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면방직공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부터 외화절약을 위해 국내면 증산 정책이 실시되어, 1949년부터 시행된 「농업증산 3개년 계획」⁹⁾의 일환으로 면화증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50년 1월 방협은 한국 면업협회와 협력하여

「국산면 대책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고, 증산계획, 매상, 인수도 대책을 논의하여 1949년산 수매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大韓紡織協會, 1968, p. 188). 그러나 이 계획은 6·25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1952년 6·25로 활동이 중단되었던 「국산면 대책 연락위원회」를 재개하고 농림부, 상공부, 면업협회, 방협이 공동으로 1차 농업 증산 5개년 계획¹⁰⁾의 일환으로 1953년을 기점으로 한 「면화 증산 및 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의 원조 계획에 영향을 미쳐 1953년 원조 계획에서 원면 자금의 책정을 일시 보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金衡模, 1991, p. 277)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여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1956년 초에 이르러 관계 당국자를 망라한 「국산면 증산 대책 위원회」¹¹⁾의 설치를 하였고, 세부 시행 방안을 주무당국에 위임하였으나 1957년까지 세부 시행방안은 초안작성조차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은 면화재배에 대해 표면적인 정책은 있었으나 원조원면과 국산면의 가격격차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보조, 면작의 경종법 개선, 우량품종 보급, 유통구조의 개선 등보다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¹²⁾

1950년대 말부터는 미국의 후진국에 대한 원조정책이 미국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원면 도입자금도 1962년부터 ICA 무상원조 자금에서 PL480호 유상원조자금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공장의 면방직 기제가 최신기제로 대체됨에 따라 섬유질이 짧은 국내면은 신형 면방직 기제에 부적합하였다(金洋和, 1990, pp. 82-85). 이에 따라 면방공장들은 원면의 조달방법은 국산면보다는 미국산 원면을 미국 수출입 은행의 차관자금으로 유상수입하거나, 또는 원면 도입으로 조성된 원면 수입기금으로 외국산 원면을 수입하는 것 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외화 절약을 위해 고급면용인 이집트면의 시험재배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5·16 이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제 3 차 농업증산계획(1962~1966)이 수립되었으나, 이 계획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양곡증산을 주목표로 함에 따라 식량 발작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면직농업은 우위를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 3 차 면화증산 계획은 처음부터 주춤거리기 시작하여, 계획의 시작연도인 1962년에는 목표치의 47.7%, 1966년에는 16.3%에 불과하였다. 제 2 차 5개년 계획기간(1967~1971년)동안 국내면 재배를 위해 진력하였으나, 이미 식량 발작물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되어, 이를 다시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면화 수매가 부진하자 1962년부터는 농림부의 수매 예시가격으로 농협이 직접 매수를 담당하기로 하고 방협은 실면인수와 조면작업을 분리하여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면화의 주산지인 경상남·북도과 전남지방에서 수매를 하였으나 농협은 면화의 적기 수매에 실패하게 되어 수매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1966년산부터는 농협 사업계획 중에서 국산면 수매사업을 폐지하고 자유 수매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면화수매는 일반 특용작물 수매사업에서 위탁 수매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1960년대 들어 면방직공업에서 국산면 소비량의 비중은 1962년 1%였던 것이 1969년에는 전량 수입 미국면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산면 수매사업도 1969년을 마지막으로 1970년에는 폐지되어(大韓紡織協會, 1977, p. 339), 면화의 용도는 종래 방직용에서 가정용 이불솜용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었다.

4. 면화재배 면적 축소의 지역적 전개

앞장에서 나타나듯이 해방 이후 면방직 공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산면이 원료로 충당되지 못하였던 것은 미국 원조에 의해 국내 원료기반을 상실한 전형적인 원조 의존산업으로서의 역사적 성격의 지니게 된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면화는 해방 이후 식량 문제의 해결, 면방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성장 정책, 미국 원면의 도입과, 환율 정책을 통한 국내면의 높은 가격, 유통구조의 난

맥상, 정부의 소극적인 재배정책 등이 어우러지면서 면화 재배 환경이 변화되고, 농업지역에서는 이들 환경이 반영되어 농민에 의한 면화 재배 포기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1) 해방 이후(1945~1960)의 면직 농업 축소의 지역적 전개

6·25를 거치면서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 6개도의 1942년과 1952년의 면화 재배 면적은 표 3과 같다. 대부분 도의 감소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화 재배의 기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55%, 73%, 55% 이상이 감소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49%, 전라북도는 27%, 경상남도는 46%의 감소율을 보여 다른 도들보다 낮다. 이와 같은 도별 차이는 원면 도입에 대해 1차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이 불리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의 도별 면화 재배 면적의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육지면의 재배 기원지이면서 지리적인 확산의 축이었던 전라남도는 1952년 현재 해방 전에 비해 재배 면적은 대폭 줄어들어 344,622단보(전국 대비 29.7%)에 미치고 있으나 전국에서 재배 면적의 비중은 가장 높다. 이후 1953년에는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다시 면화증산정책에 힘입어 다시 증가추세로 되어 1955년 386,647단보까지 재배되나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1957년과 1959년의 경우 경상북도보다 재배면적이 적다. 조선시대

표 3. 1942년과 1952년의 도별 재배면적

도 별	1942년	1952년
전라남도	675,430단보	344,622(51.0%)
전라북도	132,827	96,602(72.7%)
경상북도	498,722	222,317(44.5%)
경상남도	384,007	205,066(53.4%)
충청북도	236,973	87,525(36.9%)
충청남도	211,562	95,196(45.0%)

()안은 1942년 대비 %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42), 농림수산 통계연보(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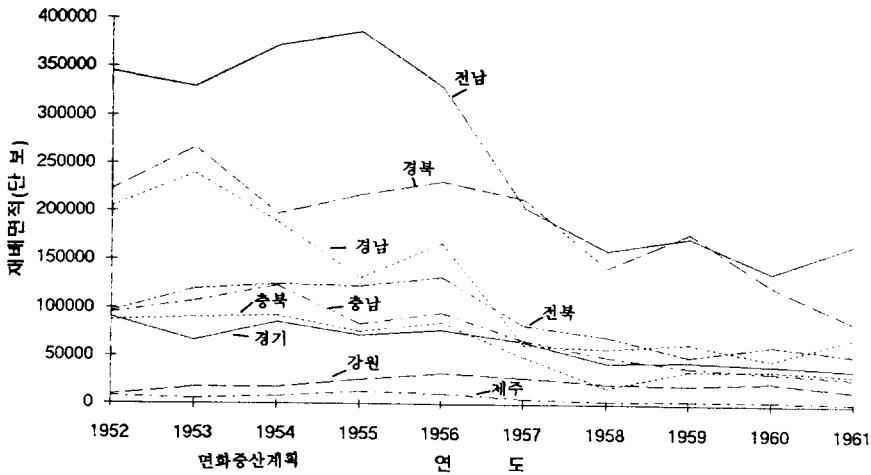


그림 5. 면화의 도별 재배면적 변화(1952~1960)

부터 면화 재배의 중심지였던 경상북도는 1953년에 266,698 단으로 1952년보다 증가를 하고 195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나 전라남도 등에 비해 감소율은 낮아 1957년과 1959년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라남도를 앞지르기도 하였다.¹³⁾ 경상북도의 이와 같은 완만한 감소추세는 당시 대구, 경북지역의 면방직 공업이 6·25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전쟁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 면방공업과 연계관계가 남아 있음에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1959년 이후 재배면적은 다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재배면적의 감소는 예외가 아니어서 1953년에 240,000여 단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의 감소추세는 경상북도보다 더욱 심하다. 이들 3개 도와는 달리 다른 도의 재배면적 추세는 상이하다. 1953년부터 실시된 면화 증산계획에 의해 1952년 이후 면화재배면적의 감소추세는 완만하고 전라북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1956년까지 오히려 증가하며, 강원도는 절대면적이 적지만 1960년까지 미약하나마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면화 증산계획이 완료되는 1957년부터 감소한다.

이와 같은 해방 이후 도별 면화 재배 추세는, 일제시대의 강압적인 재배정책에 대한 반작용과 6·25의 영향에 의한 감소추세가 1952년에 일단 진정되었음을 보이며, 면화재배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1957년

이후 대부분의 도에서 나타난 감소 추세는 정부의 소극적인 증산정책이 농민들의 면화재배 포기 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60년도 면화재배 면적의 분포는 그림 6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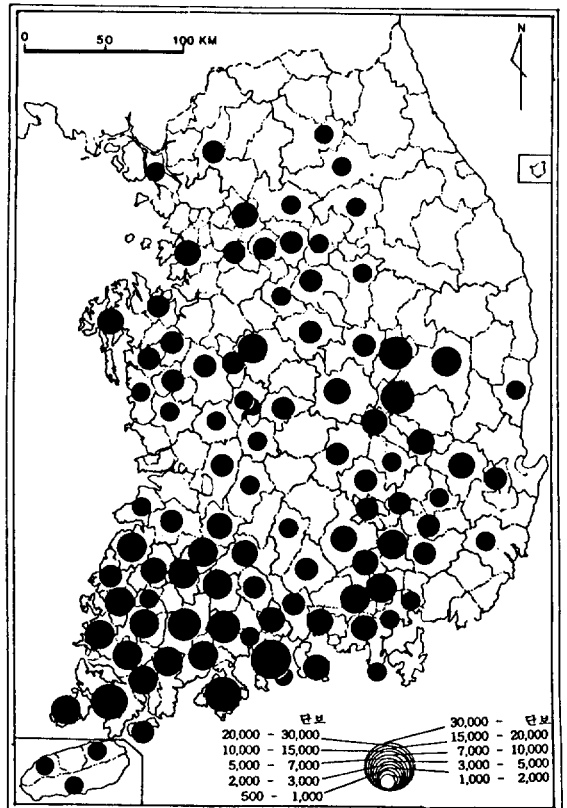


그림 6. 면화 재배면적의 시군별 분포(1960)

같다. 비교적 많이 재배되는 군은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남도 서부지방, 경북 북부지방, 충청남도 지역에 분포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여천군이 13,602단보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다. 8,000단보 이상을 재배하는 군은 고흥군과 해남군, 5,000단보 이상 재배하는 군은 승주, 화순군이며 진도, 영암, 강진, 장흥, 보성 등에서 3,000단보 이상을 재배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의성, 예천군이 5,000단보 이상, 안동군이 3,000단보 이상을 재배하며 이외에 상주, 선산, 군위, 영천군이 비교적 높다. 경상남도는 진양, 함양, 창녕군이 3,000단보 이상을 재배하고 있다. 충청남·북도에서 1,000단보 이상의 지역은 옥천,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청양, 공주, 연기군에 분포한다. 이와 같은 1960년의 면화 분포의 유형은 일제시대 육지면이 미작 평야지역의 외곽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면화 생산지는 비교적 다양하였으나 1964년 이래 면화수집 실적이 있는 곳은 여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는 식량생산이 면화 생산보다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미곡, 맥류 등의 주식 생산에 적합한 토양이 아니더라도 유채, 연초, 고구마 등의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편이 농가 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農協中央會 調査部, 1965).

2) 1960년대 이후

1960년 이후 도별 식부면적과 연도별 변화는 표 4 및 그림 6과 같다. 1960년의 전국 재배 면적은 508,264단보로 1952년의 1,159,433단보에 비해 50% 이상이 감소하였다. 1970년에는 1960년 대비 31.5%, 1970년에는 17.0%이며 1985년에는 3.7%에 불과한 18,940단보만이 재배되고 있다. 각 도별 감소율을 전국 감소율과 비교하여 보면 1960년대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지역의 감소율이 전국보다 훨씬 높다. 전국 평균 감소율과 유사한 지역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과거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배 중심지가 되었던 지역이며,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 된 지역은 면화 재배의 중심지였던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이다. 1970년대 이후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의 감소율이 전국에 비해 비교적 적으며 다른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감소율이 비슷하거나 높다.

연도별 각 도 재배 면적의 변화를 보면(그림 7) 전체 도가 196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1960년 137,505단보였던 재배면적이 제 3차 면화 증산계획이 실시된 1961년과 196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에는 1960년 대비 42.9%인 59,055단보에 불과하다.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 지다가 1970년대 말 일시 증가하나¹⁴⁾, 이후 다시

표 4. 1960년 이후 도별 면화 재배면적

(단위 : 단보)

연 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85년
전 국	508,264	160,097(31.5)*	86,640(17.0)	18,940(3.7)
경기(서울, 인천, 포함)	41,786	9,257(22.1)	2,855(6.8)	760(1.8)
강원도	23,225	911(3.9)	807(3.4)	210(0.9)
충청북도	35,834	7,856(21.9)	3,117(8.7)	440(1.2)
충청남도(대전포함)	33,526	10,123(30.1)	6,543(19.5)	2,240(6.7)
전라북도	61,282	17,989(29.3)	10,394(17.0)	920(1.5)
전라남도(광주포함)	137,505	59,055(42.9)	41,686(30.3)	10,350(7.5)
경상북도(대구포함)	123,830	32,573(26.3)	11,353(9.1)	670(0.5)
경상남도(부산포함)	47,030	21,873(46.5)	4,656(9.9)	670(1.4)
제주도	4,246	460(10.8)	5,229(123.1)	2,680(63.1)

* ()안은 1960년 대비 %

자료 : 각년도 농림수산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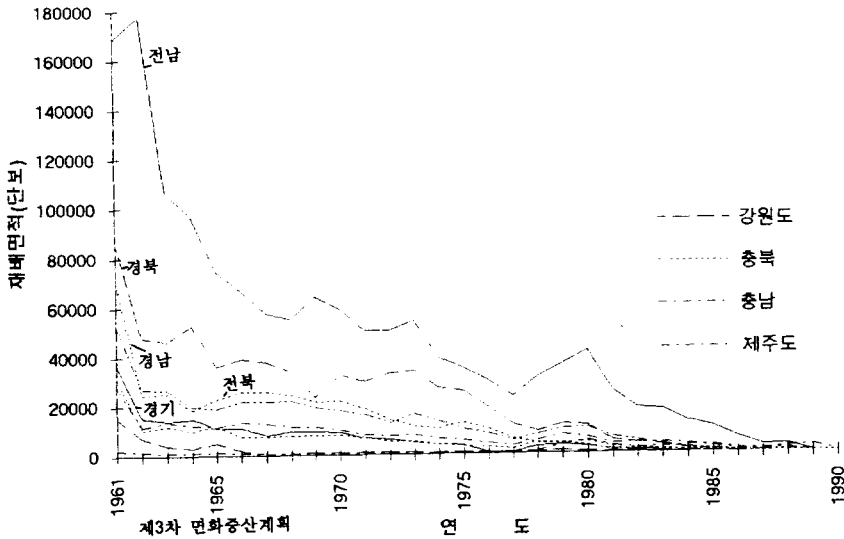


그림 7. 도별 면화 재배면적의 변화(1960~)

감소하여 1985년의 경우 1960년 대비 7.5%에 불과한 10,350단보에서만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196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1961년에는 85,000여단보에서만 재배되고 1970년에는 1960년대비 26.3%에 불과하다. 197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져 1980년에는 9.1%, 1985년에는 0.5%에 불과한 670단보에서만 재배되어 다른 도보다도 더욱 급격히 감소한다. 이와 같은 감소는 1970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 전개된 밭에서의 과수작물 특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남도의 감소추세는 경상북도와 유사하여 1985년에는 1960년 대비 1.4%에 불과한 670단보를 재배한다.

1970년과 1980년의 면화 재배면적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7에서 면화 재배의 축소의 지역적인 과정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1970년도의 재배지역은 주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북도 일부지역, 충청남도과 경기도 일부에 분포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여천군이 8,377단보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화순군에서 5,000단보 이상이 재배된다. 2,000단보 이상이 재배되는 지역은 전남의 해남, 나주, 송주, 고흥군이며 이외에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안군이 있다. 이들 지역의 면 전국적으로 1,000단보 이상을 재배하는 군은

전라남도에서 영암, 강진, 장흥, 보성군 등의 남부 해안지역과 함평, 장성과 전라북도 고창이 해당된다. 경상남도에는 함천, 의령, 진양, 창녕군이, 경상북도에는 예천과 안동군이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과 음성, 중원군, 제주도의 남제주군 등 17개 군이 있을 뿐이다.

1980년의 분포는 1970년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축소되어 분포 유형은 충청도를 제외하면 재배중심지가 여천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일제시대 초기 육지면이 처음 재배되던 시기와 거의 유사하다. 2,000단보 이상의 지역은 전라남도의 여천(3,220단보)외에 송주(2,270단보), 화순(2,620단보)뿐이며, 1,000단보 이상의 지역은 전라남도의 장흥, 보성군과 나주, 고창, 장성, 담양, 순창군과, 경북 의성군만이 해당되고, 이외의 전지역은 1,000단보 이하를 재배하고 있어 면화 재배지가 육지면의 기원지와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은 해방 이후 면화재배의 감소추세를 일제시대의 확산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일제시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재충확산이 이루어진 면화는, 재배 장력 정책이 소멸됨에 따라 기후조건이 불리하면서¹⁵⁾ 동시에 다른 작물로의 대체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육지면 재배의 발원지이면서 기후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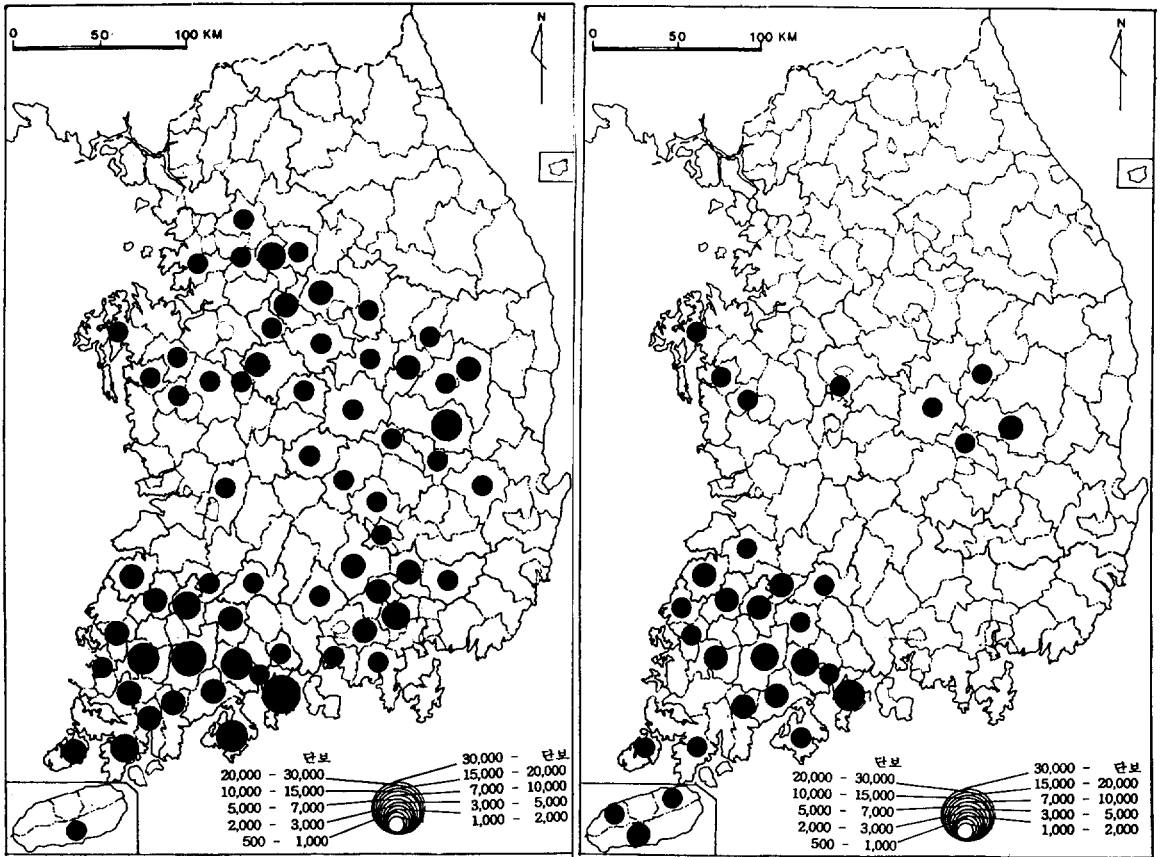


그림 8. 면화재배면적의 시군별 분포(1970; 1980)

한 전남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재배되는 면화가 대부분 자금용이거나 타 작물의 부작물로서 재배되는 현실을 볼 때 (5장에서 후술) 결국 도시 산업화시대에서의 면화는 타 작물로 대체가 가능하면 더 이상 재배될 수 있는 근거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한편, 1980년의 면화 재배지가 전남지역에만 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지역이 육지면 재배의 발원지라는 면도 있지만, 인근에 대도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면화 외에는 환금성이 높은 대체작물이 부족하였음에 기인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될 농촌의 면화재배에서 과거 면화가 재배되던 농경지에 초기에는 콩, 고구마 등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작약, 황금 등의 약초작물을 재배하고 장래의 재배계획에서도 이들 약초작물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민들과의 면

담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5. 전남 여천군에서의 면화재배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면화재배는 소멸단계에 들어가(그림 7 참조) 대부분의 농촌에서 재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3년 현재 아직까지도 전남 여천의 일부 농촌에서는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음이 담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여천군 북촌마을에서 재배되는 면화를 중심으로 재배농가의 특성, 재배방법, 소비 및 판매 형태 등을 파악하여 도시 산업사회의 농업지역에서 지니고 있는 면화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북촌마을 개관

북촌 마을이 소재한 여수·여천지방은 해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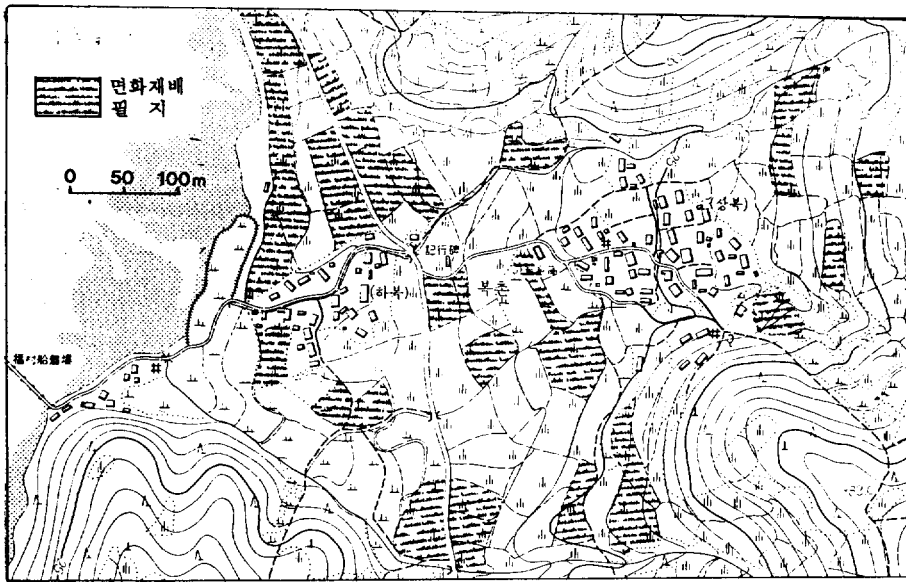


그림 9. 북촌마을의 면화재배 농경지 분포(1993)

접하고 기후가 면화재배에 적합하여 일제시대부터 목포지방과 함께 전남 면화 재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시대 이 지방의 면화 생산량은 1911년에 8,500근이었으나, 1921년에는 243만 6천근, 1927년에는 500만근으로 증가하였고 가격으로는 543만원에 달해, 생산액으로 전남의 10%를 차지하여 '면화의 여수'라고 불리기도 하였다(金鵲有, 1988, p. 429). 일제시대에는 면화를 민꽃, 미에꽃, 미인꽃이라고도 하였으며, 각 면과 마을에는 면화조합과 면화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3,000평에서 약 1,400근이 생산되었으며 쌀보다 수익이 좋았다고 한다.¹⁶⁾ 1914년(大正 3년) 3월에는 山本 조면공장 등 대규모의 조면공장이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공장은 50대의 조면기를 설치해 연간 500만근을 조면할 수 있는 당시 국내 최대의 조면공장으로서, 목포에 소재한 남북면업 주식회사의 분공장이었다.¹⁷⁾

해방 이후 여천군의 면화재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되고 있으나, 비중은 1960년대 이후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1960년대 면화 증산계획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군과 함께 면화재배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全羅南道, 1967, p. 125). 1960년대 초기에 면화 재배가 장려될때까지만 하여도 수지가

맞았으나 후반부터 채산성이 안 맞자 면화를 재배하던 밭에 콩,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북촌마을은 순천만 동안에 접하여 전체 78호 중 일부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9 참조). '전통을 잇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마을에서 당산제를 계속 지내기 때문이다. 1992년에는 남도 문화상, 농악 발굴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농촌과 마찬가지로 농가주는 연령별로 50대가 가장 많고 농가당 농업 종사자수는 2명이 대부분이다. 자녀들은 대부분 여수, 광주,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논이 14ha, 밭이 45ha로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을 가운데를 지나는 비포장 지방도로에 접한 농경지 외에는 경운기 진입이 어렵다. 밭에서는 특용작물로 참깨, 면화와 약용작물로 작약, 황금 등을 심고 있었다.

2) 면화 재배

농가중 45호가 면화를 재배한다. 농사기술은 주로 본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끔 농촌 지도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심, 수확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들끼리 이웃과 품앗이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었다. 10년 전에는 농가당 약 850평을 재배하였으

표 5. 면화 재배 필지의 특성

토양 조건		집에서 걸리는 시간	
매우 좋다	4 (10.0)	5분 이내	4 (9.7)
좋다	19 (47.5)	5분~10분	23 (56.1)
보통이다	14 (35.0)	10분~30분	13 (31.7)
나쁘다	3 (7.5)	30분 이상	1 (2.4)
매우 나쁘다	0 (0.0)		
계	40(100.0)	계	41(100.0)

(자료: 설문조사)

나 지금은 200평 정도 재배하여 연간 약 200근을 생산한다.

1993년 현재 마을내에서 면화가 재배되는 농경지의 분포는 그림 9와 같다. 재배 농경지는 바닷가와 가옥의 가까운 곳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해안에 많이 분포하는 것은 바다에 가까울수록 면화송이가 잘 벌어지고 키지기 때문이다. 농가로부터의 거리는 소요시간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다. 지목상 대부분 밭으로 토질은 대체로 양호하였다(표 5 참조).

이 마을에서 면화는 보리와 간작, 참깨와 혼작으로 재배된다. 특히 참깨는 단작일 경우보다 면화와 혼작할 경우 작황이 훨씬 뛰어나 면화

자체를 생산하기 위한 것보다는 참깨를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리와 간작으로 재배할 경우 보리수확 1~2주일 전에 간작으로 면화를 심고 보리를 수확한 후 깨를 심는다. 콩을 심기도 한다. 10월 말 면화를 뽑고 보리를 심으며 이듬해는 면화대신 콩이나 고구마를 심어 연작을 피하고 있다.

품종으로는 1982년에 목포 면직 시험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목포 7호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이 많고 꽃이 좋을 뿐 아니라 실면도 약 3% 증산된다. 면종자는 동기 농한기를 이용하여 미숙 종자 및 나종자를 제거하여 사기그릇에 종자를 담그고 濃硫酸을 부어서 5~10분 후 맑은 물에 씻고 물에 가라앉은 것만을 건져서 다시 물기를 닦아내고 건조한다. 파종은 그늘에서 오줌에 5시간 정도 침전시켰다가 재에 버무려서 파종하여 밭아시에 수분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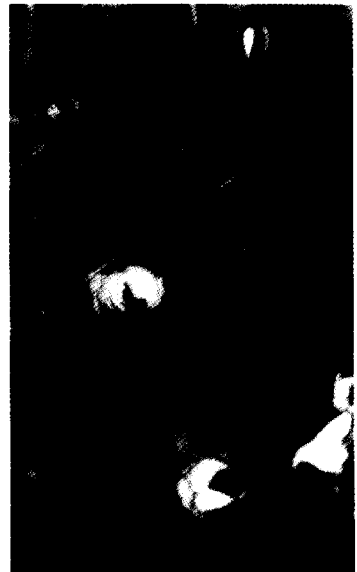
보리를 수확하기 1~2주일 전에 밭 고랑에 제초를 한 후, 중앙을 갈아 퇴비를 주고 시비구를 만들어 시비한다. 파종은 입하에 하며 파종량은 단보당 1.5근이다. 보리의 고랑사이를 90~120cm로 하고 그 사이에 한줄 혹은 두줄로 파종한다.



(1993. 6. 25.)



(1993. 8. 16.)



(1993. 10. 26.)

그림 10. 면화의 성장

비료는 파종 전에 한번 주고 김을 매면서 동시에 비료를 준다. 인분은 파종 후 20일 이내에 두렁에 준다. 除草는 파종 후 30일 이내에 3차례 하며 제초제는 따로 쓰지 않는다. 농약은 진딧물이 많아 3~4회 치고 살균제로 메타독스(제품이름)를 쓴다. 숙기는 보통 3~4회에 걸쳐서 하며 간격을 60cm의 고랑에서는 15cm로 하고 120cm의 고랑에서는 9~12cm로 한다. 제 1회는 5월 하순, 제 2회는 6월 중순, 제 3회는 6월 하순에 한다.

음력 7월 7석에 개화한다(그림 10 참조). 적심은 7월 상순경 꽃이 1~2개 필 때 개화한 것부터 하여 主幹의 先端을 摘除한다. 그리고 摘心하여 腋芽가 신장하면 제거한다. 수확은 개서한 것부터 여자들끼리 품앗이하여 摘採하며 특히 강우 전에 적채를 하는 것이 좋다. 개서한 후 비가 오면 송이는 다시 오무라진다. 보리를 심거나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개서하지 못한 송이는 줄기를 뽑아 건조시킨다. 면화를 수확하면 상인들이 일정한 시기에 들어와 한꺼번에 사간다. 순천장(2,7일)에 개인적으로 내다 팔기도 한다. 1992년도 시세는 실면 1군(600g)당 1,800원이었다.

3) 면화의 소비 : 조면과 이불솜

3년 전인 1990년도까지는 마을내의 한 농가에서 조면하는 곳이 있었으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타산이 맞지 않아 필자가 방문할 당시는 폐가가 되어 있었다. 지금 조면하는 곳은 여천에 1곳, 순천에 한 곳(아래시장의 새마을 솜공장)이 있고 여수에 헌솜을 타는 곳이 있을 뿐이었다. 면화의 조면과 처분에 대한 자료는 여천에서 조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朱某씨를 이장에게 소개받아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한편 국내면을 사용하는 이불솜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불을 만드는 업자와 부산에서 전화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자료수집이 형식화된 설문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기 때문에 면담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기로 하였다.

방문한 조면공장의 朱某씨는 비료, 농약가게를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조면기(면화의 씨를 때 솜을 만드는 공정)와 타면기(이불솜으로 쓰

기 위해 솜을 타는 공정) 1대씩을 가지고 조면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조면공장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과거에) 한참 성할 때에는 20~30만근씩 하였고, 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밤낮을 모르고 야간 작업을 하였다. 과거에는 (여수, 여천 지방에) 조면공장이 10여군데 있었고 협회도 있었다. 지금은 1년에 생산량이 없어서 별로 많이 못하고 작년(92년도)에 3~4,000근을 하였다. 늦가을, 겨울에 바쁘며 여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 병원 원장들, 결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면화솜을 찾는 경우가 있다.

조면은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솜을 타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팔아 달라는 것도 있다. 논산, 강경, 이리에 솜사는 할머니가 있어서 전화가 오면 타면하여 화물로 보내준다. 타면된 솜은 관으로 계산한다. 20근(12kg)을 타면 환관(3.75kg)이 나오는데 관당 5만원씩 가격으로 판다. 면화씨는 위장이 나쁜 사람에게 좋다. 농촌에서 종자용으로 씨를 사가기도 하고 당뇨에 좋아하여 약용으로 사가기도 한다. 기름을 짜기도 한다. 면화씨 기름은 절대로 음식이 타지 않는다.

운영하는데 수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냥 옛날부터 하던 것이고 기계가 있으니 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평소에는 쌀, 사료, 비료판매 일을 돕다가 조면할 것이 있으면 잠깐 하는 정도이다. 기계는 일제이며 부품은 국산을 갖다 쓰나 수명이 일본 것에 비해 길지 못하다. (소라면) 사곡(리)에 기술자가 있어서 와서 고쳐준다.

이상의 면담내용에서 볼 때 조면 공장은 기업적인 규모라기보다는 농촌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부업삼아 하는 정도로, 이불솜 업자와 농민간의 중간상 기능과 함께 농민의 자급용으로 쓰기 위한 요구에 따라 조면을 하여 근근히 명맥만을 이어가면서 농촌의 면화 재배를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농촌에서 재배가 미미하지만 국내산 면화는 아직도 이불솜을 위시한 약용 및 식용으로 면화의 수요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불업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국내 솜은 무거운 것이 단점이나 따뜻하다. 미면이나 카시미론은 국내면과는 달리 몸에서 땀이 나면 흡수를 못한다. 합성솜은 뭉쳐서 안 풀어지나 국내

해방 이후 우리나라 면작농업 소멸의 지역적 전개과정

숨은 사람을 씌면 다시 살아나고 셋으면 새 것이 된다. 요즘 수입숨은 대부분 중국숨이며 수명이 길지 않다. 옛날에는 이불숨에 새둥지를 썼는데 요즘은 보일러 시설이 잘 되어서 두둥지만 쓴다. 숨값이 약 15만원 정도 들어간다. 명주숨이 가벼우나 비싸서 요는 국산숨으로 하고 이불은 명주숨으로 하기도 한다. 국내 면화숨은 40~50년을 쓸 수 있고, 숨을 씻어서 다시 털면 50~60년도 쓸 수 있다. 가격은 이불 요를 만드는데 2관이 소요되므로 숨재료 값만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팔 때는 이불은 약 16만원 정도 하고 요는 12만원 한다.

이상의 면담내용에서 보면 국내면의 이불숨이 미국산이나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이불숨용 면화 재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산 면화의 점유가 국산면보다 길기 때문에 제면용으로는 부적합한데 기인된다.

북촌마을에서 농민들이 장래 재배 계획을 보면(표 6 참조), 수지가 맞지 않아 많은 농가가 재배를 포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가 소비, 일부 계층의 이불숨 구매 등의 수요가 있고, 농민들은 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앞으로도 재배가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은 다음의 면담내용에서 잘 보여준다.

전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밭이 많고, 이불숨을 재배하던 큰 소득을 기대하여 전통적으로 면화를 많이 하였다. 이제는 숨(면화)도 필요없으니 누가 명배(무명배)를 하나? 우리 마을에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딸자식에게 (면화 이불숨을) 기념으로 주는 것을 전통으로 계승하여 꼭 재배를 한다(북촌마을 정말현옹).

정부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면화를 심고 혼작으로 깨도 심고, 간작으로 콩도 심고, 가내용으로 무배추를 혼작으로 심을 수도 있다. 명년이면 더 이상 재배될 것 같지 않고 대신 약초를 심을 것 같다(북촌마을 이장).

국내 면화 이불숨에 대한 선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되었고, 지금도 50~60대는 이불을 전부 면화숨으로 한다. 지금도 만약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면 금방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2,500원씩 받아도 수지가 맞지 않다. 3,000원 정도면 농민들의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다(조면공장 朱某씨).

표 6. 앞으로의 면화 재배 계획

1994년도 면화재배계획		재배 포기 이유	
재배한다	14 (31.8)	채산성이 안맞음	15 (34.1)
재배 안한다	26 (59.1)	관로가 적당하지 않음	5 (11.4)
무응답	4 (9.1)	다른 작물을 재배	11 (25.0)
		노동력 부족	5 (11.4)
		무응답	8 (18.1)
계	44(100.0)	%	44(100.0)

(자료 : 설문조사)

이상의 면담내용에서 이불숨용으로 국내 면화 품종이 적합하다는 점과 면화가 간척지의 적응 작물로 성장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제면용 면화의 재배 확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는 국내면도 적절한 재배기술과 제면용으로 조속 품종 육성이 뒷받침된다면 농촌에서 충분히 고소득 작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이루어진 원면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한반도에서 재배가 거의 소멸된 면화의 재배면적의 축소 과정을 지역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농촌에서 아직도 자급적으로 생산되는 면화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여 원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면화가 농촌에서 재배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농업지역이 대일종속적인 구조로 편성된 채 근대적인 농업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면도입으로 인해 원면 원조국인 미국내의 사정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면방직공업은 국내 원료 기반을 상실한 전형적인 원조의존산업이 되었고, 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내면의 가격이 미국산 원면보다 비싸짐에 따라 국내면의 재배는 포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는 당시의 유통구조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배정

책이 일조를 하고 있었다. 국내면 재배면적 축소의 지역적인 과정은 먼저 기후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면화가 재배되던 농경지는 다른 발작물로 대체되었다. 원면의 수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면화 재배를 유인하는 요인이 점차 소멸되고, 작물의 대체는 가속화되었다. 1980년의 면화 재배지가 전남지역에만 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지역이 육지면 재배의 발원지라는 면과 함께, 인근에 대도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면화외에는 환금성이 높은 대체작물이 부족하였음에 기인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인구 이출에 따른 소비인구의 감소로 재배작물의 의사 결정과정에 시장 요인이 강해지면서 과거 면화가 재배되던 농경지에 약초작물 등환금성이 높은 작물로 대체되고 있으나, 대체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늦음을 의미한다.

현재 농촌에서 면화는 이불솜을 위한 가내용, 식용, 약용 외에 다른 작물의(참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배방법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실면의 조면 공장도 매우 소규모로 부업삼아 이루어지나, 이는 중간상인의 역할도 하면서 농촌에서 면화가 계속 재배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에서 수입면보다는 국내면으로 만든 이불솜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농민의 면화에 대한 애착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시장이 확보될 경우 앞으로도 면화가 계속 재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농업 공간이 도시 자본주의 공간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는 발작물을 중심으로 한 작물의 전문화이다. 쌀농사를 위한 경지가 다른 작물재배로 전환하는데 비탄력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농업지역에서, 각 농촌의 지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한 발작물의 전문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과거에 환금성이 가장 높았던 면화는 작물의 전문화 전략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원리로서 재배될 수 없는 면화

가 미미하나마 계속 재배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작물학적 기능이 면화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산 면화의 장점을 이용한 주요 개발과 정책적인 장려정책은 우리의 생활 문화를 살리면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나아가 농촌공업의 활성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결국 농촌은 식량생산공간이라는 기능과 함께 동시에, 보존되어야 할 우리들 삶의 모습을 담은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적절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投稿 1994년 7월 19일)

註

- 1) 일본은 강수량이 많고, 태풍의 내습이 가을철에 찾아 기후가 적당하지 못하였고, 병충해의 피해가 극심하여 양질의 면화를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한 풍토였다(權泰禧, 1989, p. 75).
- 2) 여기에 보급된 종자는 면화 중 King's Improved 종인데 이는 早熟, 短枝種으로 무상기일이 비교적 짧아 서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품질과 면적당 수확량이 비교적 우수하였다(鄭奎鎔, 1988, pp. 29-31).
- 3) 당시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미군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1947년 4월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점령지역 행정구호)계획에 의거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49년 ECD(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 협조처)원조, 6·25이후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 SKO(Supplies for Korea), 1955년 이후 PL480에 의거 외국산 면의 도입이 계속되었다(金衡模, 1991, p. 147 참조).
- 4) 미국 잉여농산물은 수원국의 농산물 가격을 하락하게 하고 생산을 감소시키는 부의 효력을 갖는 것과 식량원조는 수원국의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값싼 외국 농산물 도입은 생산비 이하로 소매 가격을 떨어뜨리게 할 뿐 아니라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농업투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면작업 소멸의 지역적 전개과정

를 소홀히 하고 가시적인 공업부문 투자를 선호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이 결과 미 잉여 농산물의 수원국은 미국 농산물의 수입 고객이 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Paarlberg, Don, Farm and Food policy: Issues of the 1980'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0, p. 11; 金衡模, 1991, p. 168에서 재인용).

- 5) 원조 원면의 구입가격, 즉 원조 원면의 환율은 1947년의 GARIOA자금으로부터 1958년도 PL480 자금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원조 원면도 일반 공매제에 의하여 실세를 반영한 시장환율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체는 면방공업의 육성을 내세워 실수요자에게 의한 저렴한 환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한국측 면방자본을 대변하는 방협과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金洋和, 1990, p. 15).
- 6) 최초로 미면이 공급되었던 1947년에는 파운드당 30원으로 확실히 결정 시행되어 방직업체에 배분되었다. 그 후 1947년 8월에 도입된 GARIOA자금 제 4 차분 도입 원면에는 파운드당 50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후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 ECA 원조 사업이 시작되자 등급별로 차등을 주게 되었고 1950년 1월부터 1파운드당 240圓(C등급), 300圓(B등급), 360圓(A등급)으로 배분되었다(大韓紡織協會, 1968, 紡協二十年史, p. 184).
- 7) 이 때 수입면은 30원, 50원으로 책정된 반면 국산 원면의 인수가격은 1947년 조면 근당 122원, 1948년 180원으로 책정되어, 방협의 국산면 구매는 저조할 수 밖에 없었고 두 협회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1955년의 경우 근당 355원으로 두 협회 간에 합의를 보았으나 미국면의 미들링, 화이트 등의 근당 284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방협으로는 비싼 원료를 사들이고 있고, 이 가격은 농민의 입장에서서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방협, 농민 둘 다 손해보는 입장이 되어 수집률은 1.5%에 불과하기도 하였다(崔應祥 編著, 1959, p. 39).
- 8) 1955년부터 500대 1의 환율이 적용되면서부터 수입면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1955년 2월 미면은 파운드당 34.05센트였는데 반해 인도면은 27.13센트, 파키스탄면은 32.67센트로 운송비, 원조자금에 정한 선적 조건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가를 지불하고 있었다(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58, 韓國의 産業, p. 179).
- 9) 1949년~1951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이 계획

은 국민 식량의 확보와 잉여 식량의 점차적인 수출, 각종 농산 의류원료의 증산 및 자급자족, 비료 농약 등은 잠정적으로는 우수제품의 수입, 각종 특산물의 증산과 장려 및 의화 획득 방안 강구, 공업 원료 농산물의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시책으로 ① 개간, 간척, 경지정리 등을 통한 농경지의 확장 ② 지목변경, 종자개량, 경종법 개선, 비료 증투 등을 통한 단위당 수확의 증가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6·25 등으로 계획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韓國農政四十年史(上), pp. 22-23).

- 10) 1953년을 기점으로 하고 1957년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이전의 3개년 계획과 크게 다를 것은 없었으나 농지 개량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농업 금융에 대한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이었다. 식량 작물의 증산을 위주로 함에 따라 田麥 파종의 확대가 주요 시책으로 됨에 따라 하맥작과 경쟁작물인 면화는 정책에서 우위성을 잃게 되고 결국 면화 증수는 목표치의 61%에 그치고 말았다. 이 후 실시된 제 2 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에서 종래 식량작물 위주의 증산계획에서 탈피되었으나 결과는 미곡과 맥류 증산은 성공하였으나 면화 증산 부문에서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pp. 22-24).
- 11) 동 위원회가 수립한 국산면 증산 및 수요 대책 중 중요한 것은…… ③ 매상기구의 개편과 매상 방법의 개선으로 조면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가격에의 접근 또는 균형을 기한다. ④ 국제 면가와 생산비 차액을 국고 부담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 12)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입장에서 외국 농산물의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증의 하나가 '저곡가 정책의 수행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수지가 맞지 않으며, 국내 식량 증산 기반의 확충 노력을 경시하게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p. 25).
- 13) 당시 지역별 생산성을 보면 전남은 경북지방보다 반당 수량이 높아 면적에 있어서는 경북보다 449.2정부가 작으나 수확고는 7,895원근이 더 많은 16,379원근이었는데 이는 전체 수확량의 4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증산계획에 비하여 재배면적은 58%, 수확고는 46.8%, 반당 수확고는 80.7%에 불과하다(農協年鑑, 1960, pp. 38-39).
- 14) 1979년 12월 초에는 면작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 중심으로 「木棉市場」이 부활되어 개장되기도 하였다(현대경제일보, 1979. 12. 2: 金珍順, 1980에서 재인용).

- 15) 당시 지방지에서는 목화재배에 대해 “정부의 5개년 중산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매수가격이 농민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도의 기후는 면화재배에 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8월의 우계가 지연되어 개화기, 結絮期の 태반이 장마로 마치는 해가 있고 또 개서기인 가을에 갑자기 기온이 한랭한 때도 있기 때문이다(忠淸南道誌, 1963, pp. 322-323)”라 하여 수지가 안 맞고, 기후가 적합하지 않음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 16) 麗川郡 華陽面 利川里 감도마을 이순주옹 면담내용 중의 일부분(1993. 6. 25).
- 17) 이 공장에서는 기계마다 한 사람씩 매달려서 조련 하던 재래식을 몇 백대의 기계라도 단 한사람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자동 조련기를 발명하여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발명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麗水, 麗川 郷土誌, 1982, p. 43).

文 獻

高承濟, 1959, 近世韓國産業史研究, 大東文化社.
 權丙卓, 1972, 韓國 經濟史 特殊研究, 嶺南大産業經濟研究所.
 權泰權, 1989, 韓國 近代 綿業史 研究, 一潮閣.
 金鷄有, 1988, 麗水, 麗川 發展史, 半島.
 金基赫, 1991, 韓國農業地帶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金基赫, 1994, “日帝時代 韓半島 農業의 地域構造 研究,” 釜山地理, 第3號, pp. 1-17.
 金雪枝, 1972, “南韓에 있어서 苧麻栽培의 地理的 限界,” 駱山地理, 2, 51-61.
 金洋和, 1990, 1950년대 製造業 大資本의 資本蓄積에 관한 研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金忠덕, 1993, 미국의 대한 농산물 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珍順, 1980, 韓國 綿作地域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衡模, 1991, 韓國의 綿作 綿業經濟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農協中央會 調査部, 1965, 1964年産 經濟作物生産費 및 所得調査報告書, 調査資料, 65-4輯.
 大韓紡織協會, 1968, 紡協二十年史.
 大韓紡織協會, 1977, 紡協三十年史.
 卞光錫, 1988, 18·19세기 綿布의 生産과 流通,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麗水, 麗川 郷土誌 1982.
 李圭泰, 1991, 우리의 옷이야기, 기린원.
 全羅南道, 1967, 全南 産業大觀.
 鄭奎鎔, 1988, 木花試驗研究 八十年, 農村振興廳 作物試驗場.
 崔應祥 編著, 1959, 農政 十年史, 世文社.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韓國 農政 四十年史 (上).
 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58, 韓國의 産業, 第一輯.
 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66, 韓國의 産業.
 國立民俗博物館, 1991, 문익점과 무명문화.
 澤村東平, 1985, 近代朝鮮의 綿作綿業, 未來社.
 武部善人, 1989, 綿と木棉の歴史御茶の水書房.
 西川博史, 1987, 日本帝國主義と棉業, ミネルヴァ書房.
 Bowler, I., 1986, Government agricultural policies, in Pacione(eds.),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Croom Helm, London.
 Ting, J.A., 1993, *Governance of the Industry: An Institutional-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dustrial Policies towards the Fertilizer, Cotton Textiles and Cement Industries in Taiwan, 1953~1981(China, Institutional Comparis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Larson, J.A., 1992, *An Economic Analysis of the Sequential Decision Problem for Irrigated Cotton Production in Southwest Oklahoma*, Phd.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Mather, A.S., 1986, *Land use*, Longman Group, London.
 Paarlberg, D., 1980, *Farm and Food Policy: Issues of the 1980'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Shakishali, K.M., 1993, *Acreage Decisions under Risk: The Case of Three Crops(Corn, Cotton, and Soybeans) in the Southeast Production Region of the United States (Alabama, Georgia)*, Phd.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Sunseri, T., 1993, *A Social History of Cotton*

Production in German East Africa, 1884~1915. (Volumes I and II) (Tanzania Colonial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urner, P.R., 1993, *An Economic Analysis of United States Cotton Expor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A Study on the Process of Spatial Reduction of Cotton Culture in Korea since 1945

Kihyuk Kim*

Summary

U.S. had given large amount of cotton to Korea as food aid program since 1945. This cotton aid had negative impact on cotton culture in Korean agriculture. Korean government used counterparts funds (sale proceeds of food aid) not for investment to agriculture sector, but for military budgets. And food aid on program type had influenced general economic policies, which neglected agricultural sector too. Anti-agricultural policy which was helped by U.S. food aid, had caused cotton cultivator an economic loss. So this economic loss had made many farmers abandon cotton culture. But in our times, cotton is cultivated for the purpose of domestic consumption in a few rural villag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the process of spatial reduction of cotton culture since 1945 in regional contexts in Korea, and 2) to identify the function and meaning of cotton culture which does not pay off in agricultural region. Materials for acreage of cotton culture are acquired through the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 book(1952~1989) and census. To clarify the meanings of cotton culture, field survey are conducted in a rural village which is identified as only one where cotton was cultivated in 1993.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has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the period of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1910~1945), *G. arboreum*, species of cotton which was traditionally cultivated since 1364, had been driven out. And *G. hirsutum* species, which is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highly qualified textile, has been hierarchically diffused by policy. In these period, regional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was reorganized for the provision with food to Japan. Crops leading this dependent spatial structure were rice and cotton. So agricultural region, specialized with cotton, were distributed in the hinterland of the area which is specialized with rice.

U.S. cotton aid to Korea began in 1947. U.S. took an interest in agricultural export because of her domestic surplus of cotton. Cotton aid is one mechanism by which U.S. government developed agricultural market in recipient countries. Specially in the exchange rates, up-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valuation of won to the U.S. dollars made domestic cotton more expensive than cotton imported. Production cost of domestic cotton is higher than Government's purchasing price of cotton which was also more expensive than price of cotton imported. Korean farmer could not help abandoning the cultivation of cotton, and this gave rise to spatial reduction of cotton culture.

Spatially, cotton culture was abandoned in early stage of reduction in regions where stand at a disadvantage climatically, and in next stage in regions where other up-land crops which paid off in urban market, eg, fruits, could be cultivated. In the stage of extinction, cotton was cultivated only in area where *G. hirsutum* species was originated in Korean peninsula.

This region is not only suitable climatically for cotton culture, but is far away from urban market. Use of cotton produced is not for spinning, but for fillings of comforter.

The main purpose of cotton culture in rural village is not for cotton yields, but for increase of production of sesame, which is grown together with cotton as mixed crops. Cotton product are used for domestic consumption and sold out to gin house. Though cotton culture is not paid off, farmer wanted to cultivate continuously for the cultural purpose, and they wanted the cotton culture promotion policy with the government subsidy.

Key Words: regional structure of agriculture, cotton aid, textile industry, agricultural policy, cotton cultivation.